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

1. 연암 박지원

1)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의 생애

-생몰년: 1737(영조 13)-1805(순조)

-본관: 반남(潘南)

-자: 미중(美仲) · 중미(仲美)

-호: 연암(燕巖) · 연상(煙湘) · 열상외사(洌上外史)

연암은 서울 서쪽 반송방(盤松坊) 야동(冶洞)에서 출생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매우 영민하였다. 1752년(영조 28) 전주이씨 보천(輔天)의 딸과 혼인했고, 『맹자(孟子)』를 중심으로 학문에 정진하였고, 사마천의 『사기(史記)』 등 역사서적들을 공부하였다. 1765년 첫 과거 응시에 실패 후 학문과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처남인 이재성을 비롯하여 박제가 · 이서구 · 서상수 · 유득공 · 유금 등과 이웃하면서 가까이 지냈고, 홍대용 · 이덕무 · 정철조 등과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자주 논하였으며, 유득공 · 이덕무 등과는 서부지방을 여행하기도 하였다. 벽파 홍국영이 세도를 잡은 후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고 위협을 느껴 황해도 금천(金川) 연암협(燕巖峽)으로 은거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호가 연암으로 불려진 것도 이에 연유한다. 이곳에 있는 동안 농사와 목축에 대한 장려책을 정리하게 되었다. 1780년(정조 4) 처남 이재성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삼중형 박명원(朴明源)이 청의 고종 70세 진하사절 정사로 북경을 갈 때 수행하여 압록강을 거쳐 북경·열하를 여행하고 돌아왔다.(1780년 6월 25일 출발, 10월 27일 귀국) 이 때의 견문을 정리하여 쓴 책이 『열하일기』이며, 이 속에는 그가 평소애 생각하던 이용후생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저술로 인하여 그의 문명(文名)이 일시에 드날리기도 하였으나 문원(文垣)에서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뒤 뒤늦은 1786년에 음사(蔭仕)로 선공감 감역에 제수된 것을 필두로 1789년 평시서주부(平市署主簿) ·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 1791년 한성부판관, 1792년 안의현감, 1797년 면천군수, 1800년 양양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안의현감 시절은 북경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실험적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면천군수 시절의 경험은 『과농소초(課農小抄)』 ·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 · 『안설(按說)』 등을 남기게 되었다. 그가 남긴 저술 중에서 특히 『열하일기』와 위의 책들은 그가 추구하던 현실개혁을 위한 포부를 이론적으로 펼쳐 보인 작업의 하나이다. 특히 『열하일기』에서 강조된 것은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청나라의 번창한 문물을 받아들여 낙후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 그의 노력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때는 명(明)에 대한 의리와 결부된 청(淸)나라를 배격하는 풍조가 만연하던 시기였다. 이 속에서 그의 주장은 현실적 수용력이 부족하였으나 당시의 위정자나 지식인들에게 강한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북학사상(北學思想)으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비록 적대적 감정이 쌓여 있는 처지이지만 그들의 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이 개혁되고 풍요해진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에 대한 인식의 잘

못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역대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갖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방법도 서술하였다. 그는 서학(西學)·천문학 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주자학(朱子學)이 사변적 세계에 침잠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론적 세계의 현실적용, 곧 유학의 본질 속에서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창이었으나 과감한 개혁의지의 한 표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이 곧 이윽고 후생 이후에 정덕(正德)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는 정덕을 이론 뒤에 이윽고 후생을 추구하는 방법과는 그 발상의 일대전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그가 주창하는 실학사상(實學思想)의 요체이며 이를 위하여 제시되는 것들은 자기주장의 완성을 위한 방도이다. 그 방도의 구체적 현상은 정치·경제·사회·군사·천문·지리·문학 등의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에서는 토지개혁정책·화폐정책·중상정책(重商政策) 등을 제창하고 있어 현실의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미래의 비전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남긴 문학작품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곧 당시에 주조를 이루는 복고적 풍조에서 벗어나 문학이 갖는 현실과의 대립적 현상을 잘 조화시켜 그 시대의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제와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사고가 고정적 관념에서의 일대전환을 시도한 것과 맥락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문학작품에 있어서 매개체인 언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당대에 맞는 문체의 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양반전」은 조선조 봉건사회의 와해와 그 속에서 군림하는 사(士)의 계급이 가지는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허생전(許生傳)」은 중상주의적 사상과 함께 허위적 북벌론을 배격하면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이론의 근거와 함께 그것을 실제로 작품화한 실례가 될 것이다.¹⁾

2) 연암의 철학사상

그의 철학·사상을 알아보기 위해 『열하일기』를 비롯한 그의 대표적인 글들을 살펴보고 하겠다.²⁾

- 「상기(象記)」·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 「상기」는 『열하일기』에서 코끼리를 보고 느낀 이야기를 적은 것이며, 「능양시집서」는 조카 종선(宗善)의 시집에 부친 서문이다. 이빨은 씹기 위한 것이라는 통념과 까마귀는 검다는 통념에 대한 반론으로서, 세상에 불변인 것은 없으며, 자신의 고정된 시각으로 사물을 볼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의 모습으로 보고 판단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낭환집서(狼丸集序)」와 「공작관문고자서(孔雀館文稿自序)」: 「낭환집서」는 자패(子佩)³⁾의 시집에 연암이 부친 서문이고, 「공작관문고자서」는 『연암집(燕巖集)』 권3 「공작

1)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내용 참조.

2)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서울: 태학사, 2000);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서울: 그린비, 2003) 참조.

3) 정민은 『비슷한 것은 가짜다』 121쪽에서 자패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고 하였으나, 2005년에 발행한 『18C 미친 바보들』에서는 자패가 유금(柳琴)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문고」에 스스로 부친 서문이다. 비단옷에 대한 비유와 말뚝구리의 이야기, 정령위와 양웅의 『태현경(太玄經)』의 이야기, 『장자(莊子)』의 「산목(山木)」의 삽화, 이명과 코골기의 비유 등을 통해 ‘참’은 언제나 ‘중간’ 혹은 ‘사이’에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환희기후지(幻戲記後識)」: 「일야구도하기」는 『열하일기』 「산장잡기」에 실린, 하룻밤 사이에 9번이나 황하를 건넌 이야기이다. 「환희기후지」는 역시 『열하일기』에 실린, 요술쟁이를 본 이야기이다. 물을 건널 때 눈과 귀의 반응과, 요술쟁이에 속는 눈, 화답과 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눈으로 보는 것이 참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참임을 말하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지을 때의 마음을 아기가 나비 잡다 놓친 마음에 비유한 「답경지(答京之)」도 책을 읽을 때 문장에 미혹되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즉 눈을 믿지 말고 마음을 믿으라는 뜻이다.

-「녹천관집서(錄天館集序)」·「답창애(答蒼厓)」: 「녹천관집서」는 자신의 제자 낙서(洛瑞) 이서구(李書九)의 시집에 부친 서문이고, 「답창애」는 창애(蒼厓) 유한준(兪漢雋)에게 문장과 관련하여 보낸 답장이다. 제자가 사람들이 자신의 문장이 새로운 데 대해 나무라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옛날에도 있었다면 제가 무엇하러 다시 합니까?”라고 하자 제자에게 절을 하며 “네 말이 옳다”라고 했다 하며, 「답창애」에서는 “하늘을 보면 푸르기만 한데, 하늘 천(天)자는 푸르지가 않으니 그래서 읽기 싫다”라고 한 아이의 총명함이 창힐을 기죽일 만하다고 하였다. 진짜와 가짜, 같고 다름에 관해 논하고 있다. 비슷한 것은 이미 진짜가 아니며,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으로 진짜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연암이 말한 심사(心似)는 표현은 다르나 정신이 같음을, 형사(形似)는 겉모습은 같지만 실질은 다른 것을 뜻하며, 고문(古文)만 흉내내려는 당대의 문장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동심(童心)을 잃지 않아야 진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영처고서(嬰處稿序)」: 이덕무가 젊은 시절 지은 시문을 모은 시집에 부친 서. 어린이 이 같은 천진한 생각을 담은 글이지만 처녀처럼 순진한 수줍음을 지녀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움의 뜻으로 붙인 제목이다. 자폐가 이를 보고 옛사람을 배운 티가 나지 않아 비루하고 촌스러우며 시속의 잡다함을 즐거워한다고 비판하자 연암은 기뻐하며 “그렇다면 진실로 볼만하겠다”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비록 궁벽하지만 또한 천승 제후의 나라이고, 신라와 고려가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민간에는 아름다운 풍속이 많았다. 그럴진대 그 방언을 글로 적고 그 민요를 노래한다면 절로 문장을 이루어 참된 마음이 발현될 것이다. 남의 것을 그대로 답습함을 일삼지 않고 서로 빌려와 꾸지 않고, 지금 현재에 편안해 하며 삼라만상에 나아감은 오직 무관의 시가 그러함이 된다”라고 하였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연암은 동심(童心)을 강조하고 있다.

-「초정집서(楚亭集序)」: 박제가의 『초정(楚亭集)』의 서문. 증자의 제자 공명선이 책보다는 스승의 태도와 자세를 배운 것과 노남자(魯男子)가 유하혜(柳下惠)와 다르게 처신함으로써 유하혜를 따른 예, 한신의 배수진 전법과, 우후가 손빈과 반대로 부뚜막 수를 늘임으로써 손빈의 책략을 따른 예 등을 통해 법고이지변(法古而知變)하고 창신이능전(創新而能典)해야 함을 말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변(變)’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염재기(念齋記)」·「관재기(觀齋記)」·「주공탑명(塵公塔銘)」: 『연암집』에 실려 있는 글들로, 「염재기」에서는 미치광이 송옥(宋旭)의 이야기와 술 미치광이 계우(季雨)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염재’는 계우가 제 집의 이름으로 쓴 것이다. 혼탁한 세상에서 온전한 미치광이가 되어 살아가는 송옥과 술이 있어야 미칠 수 있는 계우를 비교하며, 이들을 미치게 한 ‘생각’에 대해, 그리고 ‘생각’하는 자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관재기」는 연암의 친구 서상수(徐常修)가 집 이름을 ‘관재’라 짓고 서문을 부탁하자 쓴 글이다. 치준대사(湍俊大師)와 동자(童子)의 대화를 언급했는데, 동자가 향의 연기가 솟아오르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덧없음을 말하자, 치준대사가 향을 맡지 말고 그 재를 보며, 연기를 기뻐하지 말고 공(空)을 바라보라고 했다는 이야기이다. 허상을 좇으면 미망과 집착이 생기므로 놓아버리라는 뜻이다. 「주공탑명」은 주공(塵公)스님 입적 후 쓴 명(銘)으로, 연암이 병으로 지황탕(地黃湯)을 마실 때의 경험을 인용하여 쓴 연암의 대표적 시이다. 수천개의 거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거품이 사라지자 일제히 사라짐을 보고, “아아! 저 주공은 지나간 과거의 포말인 게고, 이 비석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현재의 포말에 불과한 거”라고 하며 “포말은 적멸(寂滅)을 비춘 것이니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슬퍼하라”라고 하였다. 사리를 수습해서 가신 스승의 ‘마음’을 길이 전해 보겠다는 현량의 ‘마음’이 허망함을 시로서 일깨워준 것이다. 이 세 글에서 연암의 자아(自我)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다분히 불교적 관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성원집발(繪聲園集跋)」: 「회성원집발」은 연암이 객집환(郭執桓)의 『회성원집(繪聲園集)』을 읽고 벗 삼고자 하나 멀리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다. 양옹이 『태현경』을 짓고 “천년 뒤의 양자운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하나, 연암은 ‘제 2의 나’인 벗은 반드시 지금의 당시 세상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벗은 내 마음의 눈과 귀가 되고, 손발이 되어 주므로 벗이 있어 비로소 내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연암의 생각이다. 「여인(與人)」⁴⁾에서 연암은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벗을 잃은 슬픔이 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삶에서 벗을 매우 중요시 했던 연암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⁵⁾: 부인 이씨를 떠나보낸 9년 후 연암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글로, 자식들 공부에 대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다. 부인 사별 후 혼자 살면서 자식들을 더욱 각별히 챙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고추장 작은 단지 하나를 보내니 사랑방에 두고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손수 담근 건데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다. 보내는 물건: 포 세 첩 · 감떡 두 첩
· 장류이 한 상자 · 고추장 한 단지”

가족에 대한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이 전해오는 글이다. 연암이 가족과 벗에게 보낸 글들은 대개 이와 같이 공부나 건강을 염려하거나 자신의 생활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하

4) 벗에게 보낸 편지글로, 연암이 처를 잃은 직후 이덕무가 세상을 뜨자 그 슬픔을 전했다.

5) 박지원 지음, 박희병 옮김,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서울: 돌베개, 2005), 25쪽.

는 내용들이 많다.

대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인식론에 있어 연암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시각을 비판하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오감에 쉽게 속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마음으로 참을 보아야 함을 이야기 한다. 또한 당시의 고문을 본떠 글을 짓던 유행을 비판하며 ‘당대’와 ‘여기’를 강조하고 있다. 시대성과 자주성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자신은 문체반정의 피해자였지만,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새로움은 고리타분한 옛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여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에 대한 생각, 존재론에 대해 연암은 매우 불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황탕에 대한 글에 그의 자아관(自我觀)이 잘 나타나 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참 자아를 찾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연암은 특히 벗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졌는데, 자신을 비취주고 알게 해줌으로 ‘제 2의 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을 연암은 생기있고 예술적인 글들로 나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언급하자면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글로 노래한 예술가**’라 하겠다.

연암은 18세기 후반의 실학과인 이용후생학과의 중심인물로, 북벌론에 대항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나라로 대표되는 선진문물을 배워 와야 한다고 주장하여 북학파라고도 한다. 이 두 논쟁은 모두 집권세력인 서인 내부의 것으로,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와 그의 제자였던 외암 이간 사이의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으로부터 시작되어 또다른 제자 한원진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간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본성이 같으며, 아직 움직이지 않은 본래적 상태는 선이라 보았고, 한원진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본성이 처음부터 다르며, 아직 움직이지 않은 마음에도 선과 악이 함께 들어 있다고 보았다. 인물성동론은 각각의 사물을 주체로 인정하므로 오랑캐라 할지라도 그 본성이 우리와 같고, 따라서 배울만한 점은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인물성이론은 오랑캐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품을 갖고 있으므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쳐서 명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북벌론으로 이어지며, 봉건적 신분질서와 차별적 계급직서를 강화하는 논리가 된다. 연암은 「한민명전의」에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고 했고, 상업에도 관심을 보여 “도로가 나빠 수레를 못쓰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안 써서 도로가 발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던 계급의식을 타파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었고, 청의 지배 하에서도 대의명분만을 앞세우며 북벌론을 주장하던 주자학자들을 비판하였으며, 결과 속이 다른 주자학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인간상을 세우려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허생전」·「예덕선생전」·「호질」 등과 같은 그의 글에도 담겨 있다.

2. 다산 정약용

2)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의 생애

-생몰년: 1762(영조 38) - 1836(헌종 2)

-본관: 나주(羅州)

-자: 귀농(歸農) · 미용(美庸)

-호: 사암(俟菴) · 탁옹(籜翁) · 태수(苔叟) · 자하도인(紫霞道人) · 철마산인(鐵馬山人) · 다산(茶山)

다산의 아버지는 진주목사 재원(載遠)이며, 어머니는 **해남윤씨(海南尹氏)**로 두서(斗緒)의 손녀이다. 4남2녀 중 4남으로, 1836년 2월 22일 향리에서 죽었다. 15세 때 **풍천홍씨(豐川洪氏)**와 혼인하여 6남3녀를 두었으나 4남2녀는 요절하고 학연(學淵)·학유(學遊)와 서랑 윤창모(尹昌謨)가 있을 뿐이다.

그의 일생은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벼슬살이하던 득의의 시절이요, 제2기는 귀양살이 하던 환난시절이요, 제3기는 향리로 돌아와 유유자적하던 시절이다. 제1기는 22세 때 경의진사(經義進士)가 되어 줄곧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시절로서 **암행어사** · **참의** · 좌우부승지 등을 거쳤으나, 한때 **금정찰방**·곡산부사 등 외직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정조**의 지극한 총애는 도리어 화를 자초하기도 하였는데 **정조**의 죽음과 때를 같이 하여 야기된 신유교옥에 연좌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신유교옥사건은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벽파가 남인계의 시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그의 학문적 업적은 그리 대단한 것은 없으나 16세 때 이미 서울에서 **이가환(李家煥)** · **이승훈(李承薰)** 등으로부터 **이익(李瀾)**의 학에 접하였고, 23세 때에는 마재와 서울을 잇는 두미협(斗尾峽) 뱃길에서 **이벽(李磔)**을 통하여 서양서적을 얻어 읽기도 하였다. 유학경전에 관한 연구로는 『내강중용강의(內降中庸講義)』 · 『내강모시강의(內降毛詩講義)』 · 『희정당대학강의(熙政堂大學講義)』 등이 있으며, 기술적 업적으로는 1789년 배다리(舟橋)의 준공과 1793년 수원성의 설계를 손꼽는다. 1795년 주문모(周文謨)신부의 변복잡입사건이 터지자, **정조**는 수세에 몰린 다산을 일시 피신시키기 위하여 **병조참의**에서 **금정찰방**으로 강등 좌천시켰는데, 불과 반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천주교에 깊이 젖은 금정역주민들을 회유하여 개종시킨 허물 때문에 후일 배교자로 낙인을 찍히기도 하였다. 이후 **정조**는 다시금 그를 1797년에 황해도 곡산부사로 내보내 1799년까지 약 2년간 봉직하게 하였다. 이 시절에 『마과회통(麻科會通)』 · 『사기찬주(史記纂註)』와 같은 잡저를 남겼다. 내직으로 돌아온 지 채 1년도 못 되어 1800년 6월에 **정조**가 죽자, 그를 둘러싼 화기(禍機)가 무르익어 1801년 2월 책룡사건(冊籠事件)으로 체포 · 투옥되니, 이로써 그의 득의시절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1801년 2월 27일 출옥과 동시에 경상북도 포항 장기(長鬐)로 유배되니 이로써 그의 제2기인 유배생활이 시작되었다. 그해 11월에 전라남도 강진으로 이배될 때까지 9개월간 머무르면서 『고삼창고훈(考三倉詰訓)』 · 『이아술(爾雅述)』 ·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 등의 잡저를 저술하였으나 서울로 옮기던 중 일실하여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강진에 도착하자 첫발을 디딘 곳이 동문 밖 주가이다. 이곳에서는 1805년 겨울까지 약 4년간 거처하였고, 자기가 묵던 협실을 사의재(四宜齋)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 시절은 유배

초기가 되어서 매우 고적하던 시절로 기록되어 있으나, 1803년 봄에 때마침 만덕사(萬德寺) 소풍길에 혜장선사(惠藏禪師)를 만나 유불상교의 기연을 맺기도 하였다. 1805년 겨울에는 주역연구자료가 담긴 경함을 고성사(高聲寺)로 옮겼으니, 여기에는 그를 위한 혜장선사의 깊은 배려가 스며 있었고 이로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날로 깊어갔다. 9개월 만에 다시 목리(牧里) 이학래(李鶴來)집으로 옮겨 1808년 봄 다산초당으로 옮기게 될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머물렀다. 이로부터 다산초당은 11년간에 걸쳐서 다산학의 산실이 되었다. 『주역사전(周易四箋)』은 1808년에 탈고하였고 『상례사전(喪禮四箋)』은 읍거시절에 기고하였으나 초당으로 옮긴 직후 1811년에 완성하였다. 『시경』(1810)·『춘추』(1812)·『논어』(1813)·『맹자』(1814)·『대학』(1814)·『중용』(1814)·『악경』(1816)·『경세유표』(1817)·『목민심서』(1818) 등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1818년 귀양이 풀리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흠흠신서』와 『상서고훈』 등을 저술하여 그의 6경4서와 1표2서를 완결지었다.

귀양에서 풀린 그의 제3기에는 회갑 때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저술하여 자서전적 기록으로 정리하였다. 총 500여권을 헤아리는 그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대체로 6경4서·1표2서·시문잡저 등 3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6경4서의 대강을 살펴보면, 첫째 시(詩)에는 『모시강의』 12권 외에 『시경강의보(詩經講義補)』 3권이 있다. 시는 풍림(諷林)이라 하여 권선징악의 윤리적 기능을 중요시한다. 악사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연주하게 하여 왕자가 그 선함을 듣고 감동하며, 그 악함을 듣고 깨우치게 하니 그 엄함이 춘추보다도 더하다고 하였다. 둘째, 서(書)에는 『매씨상서평(梅氏尙書平)』 9권, 『상서고훈(尙書古訓)』 6권,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7권이 있다. 『매씨상서』는 위서(僞書)로서 『사기』 양한서(兩漢書) 등의 기록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셋째, 예(禮)에는 『상례사전』 50권, 『상례외편』 12권, 『사례가식(四禮家式)』 9권이 있다. 관혼상제 등 사례 중에서도 상례에 치중한 까닭은, 천주교와의 상대적 입장에서 유교의 본령을 밝히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넷째, 악(樂)에는 『악서고존(樂書孤存)』 3권이 있다. 다섯째, 역(易)에는 『주역사전(周易四箋)』 24권, 『역학서언(易學緒言)』 12권이 있다. 여섯째, 『춘추』에는 『춘추고징(春秋考徵)』 12권이 있다. 일곱째, 『논어』에는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40권이 있다. 『논어』는 다른 경전에 비하여 이의(異義)가 너무나도 많다. 총 520여장 중 170여장의 이의를 하나로 묶어서 『원의총괄 原義總括』이라 하였다. 여덟째, 『맹자』에는 『맹자요의(孟子要義)』 9권이 있다. 아홉째, 『중용』에는 『중용자잠(中庸自箴)』 3권,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 6권이 있다. 열째, 『대학』에는 『대학공의(大學公議)』 3권, 『희정답대학강의』 1권, 『소학보전(小學補箋)』 1권, 『심경밀험(心經密驗)』 1권이 있다. 다음으로 1표2서의 대강을 살펴보면, 첫째 『경세유표(經世遺表)』 48권이 있으나 미완본이다. 관제·군현제도·전제(田制)·부역·공시(貢市)·창저(倉儲)·군제·과제·해세(海稅)·마정(馬政)·선법(船法) 등 국가경영을 위한 제도론으로서 현실적 실용여부는 불구하고 기강의 대경대법을 서술하여 구방(舊邦)을 유신하고자 하였다. 둘째 『목민심서(牧民心書)』 48권이 있다. 현재의 법도로 인민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니 율기·봉공·애민을 3기(紀)로 삼았고 거기에다가 이·호·예·병·형·공을 6전(典)으로 삼았으며 진황(賑荒)을 끝으로 하였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목민관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셋째 『흠흠신서(欽欽新書)』 30권이 있다. 인명에 관한 옥사를 다스리는 책이 적었기 때문에 경사(經史)에 근본하였거나 공안(公案)에 증거가 있는 것들을 모아 옥리들로 하여금 참고하게 함으로써 원한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이로써 6경4서로써 수기하고

1표2서로써 치인하게 하여 수기치인의 본말을 갖추도록 하였다.⁶⁾

2) 다산의 철학사상⁷⁾

다산은 이익이 중심이 된 경제치용학파의 일원으로, 그가 이론 다산학은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스스로 지은 비문에서 자신의 저작을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으로 나누었다. ‘수기’에 해당하는 저술인 4서와 6경을 풀어 쓴 『대학공의』·『논어고금주』·『중용자잠』 등에서 그는 실학정신과 고증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유학의 근본정신이 실천에 있음을 드러내려 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던 성리학에 대해, 실천을 중시했던 공자와 맹자의 유학으로, 즉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치인’에 해당하는 대표적 저술인 『목민심서』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극히 섬기는 ‘치인’을 위해 관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한 지방행정 개혁론이다.

그는 경험주의적이며 실증주의적인 학문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자연과학적 태도에 바탕을 두고 유교 형이상학의 불합리성을 비판하였으며, 모든 사물의 이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 속에 들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비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풍수지리나 관상 같은 술수의 폐단을 지적하며 부정하였다. 또한 소중화주의와 같은 명분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는 마음의 속성인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에 따라 실천에 의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보았고,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적 의지에 달렸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맹자의 4단도 인간의 내면에 들어 있는 도덕성이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덕으로 향해가는 실마리라고 해석하였다. 즉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덕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실현해 가는 방법으로 그는 서(恕)를 들었는데, 입장을 바꾸어 남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인간의 욕망도 긍정하여 구체적 삶의 추동력으로 보았는데, 따라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모습을 찾아보려고 하였고, 그 결과 자유의지에 근거한 실천에서 인간의 고유한 성질을 파악해 낸 것이다. 그의 시각에서는 인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활동하는 모습이다.

그의 토지에 대한 생각은 매우 혁명적이어서, “일하지 않는다면 먹지도 말라”는 현대 노동운동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농민과 같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을 돕는 자가 아니면 토지를 가질 수 없게 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는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나눈다는 공산주의 일단계의 모델과 비슷하다. ‘여전제’가 그것인데, 30가구를 1려로 하고, 3려를 1리, 5리를 1방, 5방을 1읍으로 하여, 공동경작을 하고, 1할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토지단위이면서 행정단위이고, 또 유사시에는 군사제도의 단위가 된다. 이처럼 급진적이던 그의 토지에 대한 생각은 만년에 정전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바뀐다. 정전제는 땅을 우물 정(井)자로 9등분하여 주변 8구획은 8가구에 나누어 주고 가운데 땅은 함께 경작하여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로, 가운데 땅을 공전, 주변 땅을 사전이라 한다.

6) 위 홈페이지 내용 참조.

7) 김교빈, 『한국철학에세이』(경기: 동녘, 2003)를 주로 참고했다.

이처럼 그는 백성의 삶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고, 따라서 임금과 지방 수령들을 “재산을 고르게 해서 백성들을 다함께 살리는 자”, 그리고 “부유한 쪽을 덜어 내어 가난한 쪽에 보태어 재산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세계적 양극화와 국가적 양극화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그는 소유와 신분에서 평등지향적인 이상향을 꿈꾸었고, 이러한 사회를 민란이 아닌 지식인들의 자각을 통해 이루어 보려고 하였다. 또 이를 위해 과당에 치우치지 않은 선비, 땅을 갖지 않은 선비들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신분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각한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형이상학적 관념에 사로잡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던 당시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백성들이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지식인들이 그러한 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성리학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가 유학자였던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계를 넘고자 하는 그의 노력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 「애절양(哀絶陽)」⁸⁾은 다산의 생각과 스타일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20세기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입각한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다음은 번역시의 전문이다.

갈밭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옴은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부터 남절양(男絶陽)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 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삼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역울함을 호소하려도
 이정(里正)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갔네
 남편 문들 칼을 갈아 방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잠실궁형(蠶室宮刑) 이 또한 지나친 형벌이고
 민(閔) 땅 자식 거세함도 가엾은 일이거든
 자식 낳고 사는 건 하늘이 내린 이치
 하늘 땅 어울려서 아들 되고 딸 되는 것
 말, 돼지 거세함도 가엾다 이르는데
 하물며 뒤를 잇는 사람에 있어서랴
 부자들은 한평생 풍악이나 즐기면서
 한알 쌀, 한치 베도 바치는 일 없으니
 다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하고
 객창에서 거둬거둬 시구편(鳴鳩篇)을 읊노라

8) 다산이 강진에 있을 때 노전(蘆田)에 사는 한 백성이 아이를 낳은지 사흘만에 군보에 등록되고 이정이 소를 빼앗아가니 그 사람이 칼을 뽑아 자기의 생식기를 스스로 베었다는 사연을 듣고 지은 시

그의 글에서는 이처럼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잘못된 제도로 인한 폐단들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 대개 자식들에게 독서에 대한 강조와 처신에 대한 훈계들, 그리고 가족과 일가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 다음은 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이다.⁹⁾

내 나이 스무살 때는 우주 사이의 모든 일을 다 알아내고 싶어 전체를 깨닫고 완전히 그 이치를 정리해내겠다 했는데 서른살이나 마흔살 때까지도 그러한 의지가 쇠약해지지 않더라. 모진 세월을 당한 뒤에는 백성과 나라의 일에 관계되는 모든 일 즉 전제(田制)·관제(官制)·군제(軍制)·부제(賦財) 등에다 온 정신을 기울일 수 있었고 다만 경전을 연구하는 사이에는 혼잡된 것들을 모두 파헤쳐 가장 정통의 옛 유교원리로 바꾸어 놓으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몸에 중풍병만 생겨 몸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점점 쇠잔해 가지만 그러나 정신 상태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면 한가롭게 생각이 떠올라 문득 옛날의 욕심들이 다시 일어나곤 한다.

늙어서 몸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젊어서의 뜻을 버리지 않았던 곧은 정신과 기백을 느낄 수 있다. **다산에게서 ‘앓’이란 곧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연암과 다산¹⁰⁾

연암과 다산은 동시대를 살아간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다. 그들은 모두 실학자였고, 당시의 체제적 모순을 비판했으며, 조선의 주체성에 대해 자각했고, 뛰어난 글들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사유에도 상반된 점이 있다. 어쩌면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질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그들이, 실제 삶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모습과 사유를 지녔던 차이점을 짚어보며, 하나의 이상에 다다른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 연암은 「답경지」3편에서 나비를 잡다 놓친 아이의 심정을 예로 들며 사마천의 글보다 그 마음을 읽으라고 하였는데, 다산은 「기유아(寄游兒)」에서 아들에게 「본기」나 「열전」보다는 「연표」나 「월표」를 자세히 읽는 것이 제대로 역사책 읽는 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야 큰 줄거리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마천의 마음을 통해 그 시대를 읽고, 또 현 시대에 적용하고자 한 연암의 사고와 분석적으로 읽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한 다산의 사고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문제반정이 휘몰아칠 즈음, 『열하일기』는 이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된 반면, 다산은 폐관잡서야 말로 인재(人災) 중 가장 큰 것이므로 모두 모아 불사르고 소지한 자들을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암은 집권 노론파의 일원이면서도 과거를 거부하고 권력 외부에서 떠돌며 문제적 실험으로 새로운 담론을 열고 있었던, 그래서 문제반정의 핵심대상으로 지목받을 즈음, 다산은 집권에서 배제된 남인의 일원이면서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 사이에 공통점이라

9) 정약용 지음, 박석무 옮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서울: 시인사, 1980), 149쪽.

10)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주로 참고했다.

면 가난했던 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연암은 패관잡기에 해당하는 『열하일기』를 쓰기도 문체반정의 회초리를 교묘히 피해갔고, 다산은 서학과 관련된 지목을 받으면서도 “서양학을 금지하려면 먼저 패관잡기부터 금지시켜야 한다”는 정조의 의지에 힘입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점도 비슷하다면 비슷하달까...

글을 쓰는 스타일에 있어서도 둘은 매우 다르다. 연암이 직설적인 표현을 피해 은유와 비유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기교파였다면, 다산은 「애절양」에서 보듯 직설적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리얼리즘파라고나 할 것이다.

연암은 고정되고 경직된 시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유연성으로 새로운 담론을 열어간 반면, 다산은 유학의 원초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들을 다시 복원하여 역동성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당시의 문장학의 타락과 과거학의 폐해 등을 극복하고자 했다. 성리학의 폐단과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한 점은 같으나 그 방법은 이렇듯 상이했던 것이다. 따라서 연암의 글은 중층적이고 생동적이고 해학적이며, 다산의 글은 직설적이고 힘이 있으며 투명하다.

18세기의 중점적 철학 논쟁이었던 인물성동이론에서도 연암은 인물성동론의 입장인 반면, 다산은 인물성이론의 입장을 취한다. 연암은 인물막면(人物莫辨), 즉 인성과 물성은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뿐 아니라 심지어 만물진성설, 즉 모든 것-인간까지도 먼지에서 발생한 벌레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반면 다산은 인성과 물성은 결단코 다른 것이어서 물성은 사물의 자연적 법칙에 한정되고, 인간의 존재는 물질계의 어떤 류로부터도 초월해 있으면서 모든 것을 향유하는 주체로 본다. 매우 인간중심주의적인 시각이다.

자아론에 있어서도 둘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데, 연암은 「주공탐명」에서 황지탕을 마시는 자신의 존재가 포말과 같으며,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고 한 반면, 다산은 「수오재기(守吾齋記)」에서 “하의 만물은 지킬 것이 없으나 오직 나만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둘의 편지글들을 읽어보면 연암이 벼슬 중시여긴 반면, 다산은 효제(孝悌)를 중시여겼음을 알 수 있다.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연암은 벼슬의 안부를 자주 묻는 반면, 다산은 가족과 친지들, 특히 집안 어른들의 안부를 당부하는 내용이 많다.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당대에 이름 높은 글쟁이들이었으면서도, 성리학의 폐단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삶을 동시에 염려했으면서도, 만나지도, 서로에 대해 글을 남기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둘이 서로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굳이 만나거나 평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알고 있었지만 서로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에서는 합치함을 느꼈기에 서로 비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두 명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또한 다양할 수 있음에 대해 확인하였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예술가도 혁명가도 필요하다는 점 또한.....

사족: 최근 출간된 책들 중 『다산과 연암, 노름에 빠지다』라는 책이 있었다. 다산이 곡산부사 시절 기생들을 데리고 친구들과 저포노름을 한 이야기와, 연암이 편지 쓰다 문장이 막히면 혼자 쌍륙을 쳤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다. 유승훈이 썼다.